



## 弘益大學 建築科長 尹 道根 氏

日曜日인 2月 21日 午後 1時30分 本部에서 隣接한 'H: 茶室에서 尹課長任과 반가히 人事를 교환했다.

尹:「그렇잖아도 한번 뵈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會誌의 体制에 對해서 淸 호감이 갑니다. 前年度에 比해서 內容이 淸 多樣해졌어요 亦是 「建築士」誌는 이런 体制가 누구나 부담없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編:「尹課長任께서 建築을 전공한 동기는…」

尹:「제 兄任이 美術을 했어요. 兄弟가 모두 美術을 하기가 무엇해서 弘大 建築課에 지망을 했는데 本人이 弘大 建築課 第1回입니다. 현재 제 14, 5회 가 됩니다.」

編:「현재 슬하엔…」

尹:「外國에 좀 다녀 오느라고 晩婚이 되어 이제 結婚한지 불과 3年입니다. 두 살 짜리 하나입니다. 哈……」

編:「그러시다면 아직도 新婚生活이나 다름 없겠습니까.」

尹:「哈… 네. 그렇긴 합니다만…」

編:「그런데 外國에 다녀오게 된 동기는……」

尹:「파리 國立建築科學技術研究處 초빙으로 얼마간 다녀 왔습니다.」

編:「거기대해선 특별히 원고 淸탁을 淸식으로 하겠습니까.」

尹:「그러시죠.」

編:「사모님과의 結婚은 연애, 또는 淸매이신지요?」

尹:「淸매도 되고 연애도 됩니다만… 淸은 아버님과 같이 장인 어른께서도 大學敎授로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이는 淸 自然스러웠다고나 할까요」

編:「그런데 求婚作戰은 어느 편에서…」

尹:「哈… 그야 물론 제가 아니겠습니까 哈……」

編:「사모님에 對해서 자랑을 좀 해 주시죠」

尹:「세상엔 좀 무정한 사람이 여편네 자랑한다지만… 사실은 內助의 역할이 많군요. 한말로 말해서 제가 많이 부러 먹습니다. 哈… 그것도 그런것이 집 사람 또한 弘大 應美科 出身이고보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군요.」

編:「한국 住宅에 對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尹:「亦是 居室空間이 淸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家族의 구성원이 각기 居室空間을 잘 이용하고 못하고 하는데 따라 미치는 영향은 가정적으로나 社會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住宅과 國民性이 바로 居室空間의 처리에 따라 형성되는 요건의 하나라고 하겠습니까.」

居室空間과 人格性에 對한 문제에 對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本 會誌에 한번 다루어 볼 必要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編:「建築士協會에 對해서 建議 또는 要望事項이라도 있으시면…」

尹:「어느 協會 團體를 막론하고 會員들의 資格이 淸같은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현재 建築士는 大學 建築科를 卒業해서 5年間の 實務經年을 쌓아야 한다는데 여기 대해선 좀 고려해야 할 點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建築學徒 뿐만 아니라 各個 各層의 建築關係 從事者들에게도 「建築士」誌의 구독을 했음합니다. 그래서 對話의 廣場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토록 훌륭한 책자를 발간해 주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회장님과 여러 임원들, 그리고 편집자 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